

## 성경 번역상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들, 전문성 대(對) 대중성

—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빌레몬서 1:9의  
“presbutēs”(πρεσβύτερος)를 중심으로 —

안교성\*

### 1. 서론

세계종교는 종교에 따라 경전을 보급하는 방법이 다르다. 번역을 통해 경전을 보급하는 종교가 있고, 원어 경전을 고수하면서 원어 교육을 통해 보급하는 종교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는 번역을 통해 경전인 성경을 보급했고, 이에 따라 기독교 전파의 역사와 성경 번역의 역사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런 역사는 원어 경전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이슬람교의 경우와는 상이하다.<sup>1)</sup> 기독교가 성경을 원어 경전뿐 아니라 번역본을 사용했다는 사실, 심지어 중세 시대에는 원어 경전보다 번역본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는 물론이고 성경 번역의 역사도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사관 중 하나인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 담론을 주창했던 앤드루 월스(Andrew Walls)는, 기독교 역사를 아예 ‘번역’의 원리로 설명하기까지 했다.<sup>2)</sup>

\*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한국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교회사 교수. [ksa@puts.ac.kr](mailto:ksa@puts.ac.kr).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9195).

1) 물론 최근에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을 번역하는 추세가 유행하지만, 기독교의 경우처럼 번역본이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2) Andrew F.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6), 26-42.

기독교가 성경의 번역본을 중시하는 전통은 기독교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그 가운데에서 성서신학 분야인 주석과 성경 번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모두 번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만일 기독교가 번역본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주석은 성경 원문에 대한 설명으로 그치고 굳이 사역(私譯)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번역본 특히 자국어 번역본을 중시하고 또한 성서신학을 포함한 신학 연구도 대부분 자국어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부지불식간에 번역이 개입된다. 물론 성경 번역은 말할 것도 없다.

본 논문은 번역의 관점에서 주석과 성경 번역의 관계를 살펴볼 것인데, 사례 연구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몽골 키릴 문자 번역본)의 빌레몬서 1:9의 “presbutēs”(πρεσβύτης)라는 단어의 번역에 나타난 단어 선택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빌레몬서는 1:9의 “presbutēs” 이외에는 본문 확정에 있어서 거의 문제가 없어서, 주석상 문제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둘째,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왔는데, 번역본에 따라 해당 단어의 번역에 있어 다양성이 나타난다. 이런 주석의 단순성과 번역의 복잡성이란 특징이 이중적으로 성경 번역상 단어 선택 전략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presbutēs”에 대해서 ‘고령인’(노인), ‘대사’, ‘[생략]’ 등 다양한 단어 선택 전략을 구사한다.<sup>3)</sup> 특히 흥미로운 것은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이 번역본에 따라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을 취할 뿐 아니라, 개정 작업에서도 상이한 단어 재선택 전략을 취한다는 점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재론하겠지만,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presbutēs”의 성경 번역상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주석과 성경 번역의 단어 선택 전략의 차이점을 밝히며, 나아가 성경 번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주석은 전문적인 번역으로서 가능한 한 단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 확산 전략을 취하는 데 반해, 성경 번역은 대중적인 번역으로서 가능한 한 단어 선택의 폭을 좁히는 축소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몽골어 성경 번역의 역사는 유구한데,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래 다양한 번역본이 나왔다.<sup>4)</sup>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3) ‘고령인’이나 ‘대사’로 번역할 경우, 번역 양상이 다양한데, 명사,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substantive use) 등의 단어 형태나 서술형 구(句)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령 친화적 관점에서 ‘노인’보다 ‘고령인’이란 단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몽골어 성경 번역의 역사는 다음 글들을 참조할 것.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안중환 역, 『성경원문연구』 19 (2006), 200-214; 안교성, “성경 번역과 교회 연합: 성경 번역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정은 명예총장 은퇴 기념 출판위원회 편, 『예루살렘에서 땅

원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은 번역본은 나오지 않았고, 기존 타 언어 성경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번역본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 본 논문은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을 중심으로 하되, 비교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부류의 성경 번역본도 검토할 것이다.<sup>5)</sup> 첫째, “presbutēs”에 대한 새로운 주석과 번역을 시도했던 영어 성경 번역본이다.<sup>6)</sup> 둘째,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과 유사하거나 이것에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 언어 성경 번역본, 즉 몽골어 구문자 성경 번역본(20세기 중반 이전에 번역된 구문자 번역본 및 내몽골의 구문자 번역본), 만주어 성경 번역본, 일본어 성경 번역본 및 한국어 성경 번역본이다.<sup>7)</sup> 셋째, 언어적 특성은 다르지만, 동아시아 성경 번역본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어 성경 번역본이다.<sup>8)</sup>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티벳어 성경 번역본과의 비교 연구도 시도해 볼 만하다.<sup>9)</sup> 넷째,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5가지 언어 성경 번역본(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 등) 가운데 위에서 검토되는 것을 제외한 러시아어와 독일어 성경 번역본이다.<sup>10)</sup>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밝힐 것이 있다. 첫째, 성경의 번역본이 다양한 만큼, 본 연구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번역본을 망라한 총괄적

끝까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27-145;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에서 <몽골성서공회본>으로”, 『성경원문연구』 42 (2018), 90-114.

- 5) 본 연구는 번역본의 연구에 있어서, 개별 번역본을 확인했다. 이하 각주에서 잘 알려진 번역본은 출판 연도만 밝히고, 서지사항이 필요한 번역본은 서지사항을 전부 밝힌다. 성경 번역본의 명칭이나 출간 연도는 『성경원문연구』 원고 투고 규정에서 추천하는 것을 따른다. 예시되지 않은 것은 예시에 준하거나 혹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따르도록 한다.
- 6) 특히 영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는 대조 성경이 많은데, 폭넓은 조망을 위해 참고용으로 개별 번역본과 더불어 확인했다. 사용한 대조 성경은 다음과 같다. *The Layman's Parallel Bible: KJV, The Modern Language Bible, The Living Bible, RSV* (Grand Rapids: Zondervan Bible Publishers, 1973); *The Word: The Bible from 26 Translations* (Mose Point: Mathis Publishers, 1988); *KJV, NKJV Parallel Reference Bible*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1); *Comparative Study Bible: NIV, Amplified, KJV, updated NASB* (Grand Rapids: Zondervan, 1999); John R. Kohlenberger III, ed., *The Essential Evangelical Parallel Bible: NKJV,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NLT (New Living Translation), The Message*, update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7) 만주어는, 언어는 몽골어와 유사 언어이지만 별개의 언어이고, 문자는 몽골 구문자를 차용해서 사용했다.
- 8) 본 논문은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 한국어 등을 지역적, 언어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별 언어의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에 유의할 뿐 우랄-알타이어족이나 일본어의 어족 문제 등 본격적인 역사언어학적 논쟁은 논외로 한다.
- 9) 몽골어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언어인 티벳어가 중국어와 한 어족인 중국-티벳어족(Sino-Tibetan language family)에 속하기 때문에, 몽골어 성경-티벳어 성경-중국어 성경의 비교 연구도 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다.
- 10)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볼 것.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101.

연구가 아니고, 접근이 가능하고 번역상 특징이 나타나는 번역본, 특히 개정본이 있는 번역본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 연구라는 점이다. 그리고 1:9에서도 “presbutēs”에 집중하고,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1:8-10의 절 분류, 문장 순서, 문장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둘째, 본 연구는 주석 자체보다 주석과 성경 번역의 관계를 번역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주석에 관한 논의는 번역과 관련된 것에 국한한다.

## 2. 주석상의 문제

빌레몬서는 성경 중 본문비평상 문젯거리가 거의 없는 책이라는 학자들 간의 공감대가 있다. 물론 빌레몬서는 분량 자체가 25절에 불과한 작은 책이고,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도 1:9의 “presbutēs”의 의미 확정 정도이다.<sup>11)</sup> 따라서 문제의 규모가 작고 단순한 만큼, “presbutēs”의 의미 확정 및 번역은 성경 번역상 단어 선택 전략을 위한 이상적인 실험 기회를 제공한다.

바울은 빌레몬서 1:9에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일종의 탄원을 하면서, 탄원자로서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presbutēs”라고 표현한다. “presbutēs”는 소위 ‘하팍스 레고메나(hapax legomena,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희귀 단어)’는 아니지만, 신약성경에 단 3번만 나올 정도로 드문 단어이다.<sup>12)</sup>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주석의 문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주석의 설명은 당연히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주석에 따르면,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은 ‘고령인’ 혹은 ‘대사’가 가능하다.

“presbutēs”는 기존에는 ‘고령인’을 가리키는 단어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고령인’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약성서에서 고령인을 가리키는 단어군 중 대표적인 단어는 “presbuteros”(πρεσβύτερος)로 총 66번 나온다.<sup>13)</sup> 따라서 “presbutēs”를 ‘고령인’으로 번역하는 입장은 “presbutēs”를 “presbuteros”와 동의어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석상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바로 리처드 벤틀리(Richard Bentley)이다. 벤

11) 이밖에 1:6의 그리스어 문법과 번역 난해도 정도가 거론되는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Larry J. Kreitzer, *Philemon*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8), 3-4, 특히 각주 7).

12) Warren C. Trenchard, *The Student's Complete Vocabulary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Complete Frequency Lists, Cognate Groupings & Principal Part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95.

13) Ibid.

틀리는 “presbutēs”가 아니라 “presbeutēs”(πρεσβευτής)가 맞는데, 그럴 경우 ‘대사’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이런 주장의 결정적인 약점은 “presbeutēs”는 사본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5)</sup> 오늘날 벤틀리의 주장은 여러 학자를 통해서 수용되어, “presbutēs”에 대한 주석상 설명은 대개 ‘고령인’과 ‘대사’라는 선택지를 모두 소개하고, “대사”를 택할 경우 왜 ‘대사’가 ‘고령인’보다 나은 번역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sup>16)</sup> 따라서 주석들 가운데는 주석가의 성향에 따라 본문의 사역에서 ‘고령인’을 택하기도 하고 ‘대사’를 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주석가의 임무는 성경 원문의 확정, 의미 분석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전문가에게는 이런 작업의 학문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런 단어 선택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성경 번역의 맥락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 번역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 3. 성경 번역상의 문제 (1): 영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

성경 번역은 통상 기존 성경 번역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경 번역은 일종의 간문헌(intertextuality)적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경 번역에서 원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을 경우도 기존 성경 번역본의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더구나 원어 성경이 아닌 기존의 타 언어 성경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서양의 성경 번역본의 대표적인 라틴어 VUL(Latin Vulgate; Nova Vulgata, 1986)은 “presbutēs”를 ‘고령인’(senex)으로 번역한다.<sup>17)</sup> 영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는 크게 4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첫째,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일반적으로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한다. 가령 기존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KJV(King James Version, 1611/1769)는 ‘고령

14) Markus Barth and Helmut Blanke, *The Letter to Philemon: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0), 322.

15) Ibid.

16) 주석들 가운데는 ‘고령인’과 ‘대사’ 간의 선택에 있어서 양자가 대립적인 것처럼 보는 입장도 있고, 혹은 ‘고령인’이란 단어가 ‘대사’라는 의미로도 쓰였고 당시 ‘대사’는 대개 ‘고령인’의 뜻이었으며, 두 단어가 어원적으로도 가깝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것 혹은 보완적인 것처럼 보는 입장도 있다.

17) Markus Barth and Helmut Blanke, *The Letter to Philemon*, 321. 이 주석가들은, “presbutēs”를 라틴어 성경이 “senex”로 번역했지만 “senex”는 인생을 7단계로 나눌 때 “presbutēs”보다 더 나이가 많은 “gerōn”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인'(the aged)이란 단어를 선택했다. 그리고 NKJ(New King James Version, 1982) 역시 '고령인'(the aged)이란 단어를 선택했다. 최초의 번역본과 개정본이 같은 단어를 선택했고, 단어 재선택 전략은 유지형, 변화형 중에서 유지형이다. 단어 재선택 전략의 보수화 혹은 보편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축자역 번역본인 NAS(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60/1971)도 '고령인'(the aged)이란 단어를 선택한다.<sup>18)</sup> 엄밀한 축자역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번역본인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1979)도 '고령인'(an old man)이란 단어를 선택한다.<sup>19)</sup>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하는 번역본은 대개 축자역본이다.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의역본인 LB(Living Bible, 1971)도 '고령인'(an old man)을 택한다.<sup>20)</sup>

둘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대사'(ambassador)란 단어를 처음 선택한 것은 RSV(Revised Standard Version, 1952)로 알려졌다. RSV가 당대 성서신학의 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한 만큼, 이런 새로운 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RSV는 넓은 의미에서 NKJ처럼 KJV의 개정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NKJ는 KJV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개정본이고, RSV는 KJV에 대한 1881-1885년의 개정 노력 및 ASV(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의 뒤를 이어 성서신학의 학문적 결과를 중시하는 개정본이라는 점이 차이라고 하겠다. 흥미롭게도 RSV 계열의 선두 주자인 ASV가 '고령인'(the aged)이란 단어를 선택하지만, 각주/난외주에서 '대사'(ambassador)라는 단어를 소개한다.<sup>21)</sup> 따라서 KJV의 '고령인'(the aged)에서 RSV의 '대사'(ambassador)로 직접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고령인'을 선택하면서도 '대사'의 가능성을 소개하는 단계가 있었다.

RSV는 본문에서 '대사'(ambassador)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각주/난외주에서 '고령인'(an old man)이란 단어를 소개한다.<sup>22)</sup> 그런데 흥미롭게도 개정 작업에서 정반대의 양상이 드러난다. NRS(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는 RSV와는 달리, 본문에서 '고령인'(an old man)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대신 각주/난외주에서 '대사'(ambassador)라는 단어를 소개한다.<sup>23)</sup> 개정본이 보다 전통적인 단어를 선택하면서, 단어 재선택 전략은 변화형이고, 보수화 혹은 보편화 경향을 보인다. RSV 이후 영어 성경 번역본

18) NAS는 <MBTC본>(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Version)의 저본이다.

19) NIV는 <MBTC본>의 또 다른 저본이다.

20) LB는 <확장본>(Amplified Version)의 저본이다.

21) "Or, an ambassador."

22) "Or an old man, and now & c."

23) "Or as an ambassador of Christ Jesus, and now also his prisoner."

에서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사’를 선택하는 번역본은 대표적으로 NEB(New English Bible, 1961)가 ‘대사’(ambassador)라고 번역하고 각주/난외주는 없으며, GNB(Good News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1976)가 ‘대사’(ambassador)라고 번역하고 각주/난외주에서 ‘고령인’(an old man)이란 단어를 소개한다.<sup>24)</sup>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성경 번역본은 대개 의역본이다.

셋째, AB(Amplified Bible, 1954, 1987)는 다소 기발한 단어 선택 전략을 취한다. AB는 “presbutēs”를 단어가 아닌 구로 표현했는데, ‘대사요 고령인’(an ambassador [of Christ Jesus] and an old man)이라고 번역하면서 논쟁이 되는 두 개의 개념을 한꺼번에 취한다. 이것은 다분히 절충적인 혹은 편의주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AB는 성경에 일종의 주석을 접합한 성격을 지닌 특별한 번역본이라서,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성경 번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넷째, 아예 전혀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단어 선택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CEV(Contemporary English Version, 1995)는 ‘~하는 사람 [으로서]’(as someo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각주/난외주에 ‘대사’(messenger)와 ‘고령인’(an old man)을 소개하고 있다.<sup>25)</sup>

영어 성경 번역본의 단어 선택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선택 전략은 4가지인데, ‘고령인’, ‘대사’, ‘대사-고령인’, ‘기타 단어’이다. 둘째, 개정 작업에 나타난 단어 재선택 전략은 2가지인데, 유지형, 변화형이다.

#### 4. 성경 번역상의 문제 (2):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presbutēs”의 단어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 성경 번역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고령인’, ‘대사’, ‘[생략]’ 등의 다양한 단어 선택 전략을 보인다. 개정 작업에 나타나는 단어 재선택 전략도 다양하다. 이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명칭은 안교성의 논문,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에서 <몽골성서공회본>으로”에서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sup>26)</sup> 이

24) “or an old man, and at present a prisoner for the sake of Christ Jesus.” 그리고 GNB는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Today’s Mongolian Version)의 저본이다.

25) “someone: Greek ‘a messenger’ or ‘an old man’.”

26)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90-114, 특히 95.

논문에 따르면 <확장본>(Amplified Version, 1990), <회복역본>(Recovery Version, 1993), <MBTC본>(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Version,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 신약 1996; 신구약전서, 2000),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Shin Gere Version; Today's Mongolian Version, 1998)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확장본>은 “presbutēs”에 대해 ‘대사’(elchin said)라는 단어를 선택한다. 이것은 RSV와 같은 양상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확장본>의 개정 작업에 나타난 단어 재선택 전략도 RSV의 경우와 똑같다는 점이다. 즉, RSV가 ‘대사’를 선택했지만 NRSV에서 ‘고령인’으로 바뀐 것처럼, <확장본>이 ‘대사’를 선택했지만 <개정확장본>(2015)에서 ‘고령인’(oevgoen)으로 바뀐다. 즉, 단어 재선택 전략이 변화형이다. 결국 단어 선택 전략의 보수화 혹은 보편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회복역본>은 ‘고령인’(nastai)이란 단어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후에 개정본이 나오지 않아서, 단어 재선택 전략은 알 수 없다.<sup>27)</sup>

셋째, <MBTC본>은 ‘고령인’(nastai)이란 단어를 선택한다. <개정 MBTC본> 곧 <MUBS본>(2013)도 ‘고령인’(nastai)이란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단어 재선택 전략은 유지형이다.<sup>28)</sup>

넷째,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은 ‘[생략]’ 전략을 쓴다. 이 성경 번역본은 번역가 자신의 구두 설명에 의하면 GNB의 몽골어판을 염두에 두었는데, GNB가 ‘대사’(ambassado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과격한 선택을 한다. <개정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2016)은 성경 서문을 보면 영어나 러시아어가 아니라 원어에서 직접 번역했고, 저본으로도 독일성서공회의 독일어 GNB(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Gute Nachricht Bibel, 1997, 2000; 이하 Deutsch GNB)를 삼는다고 한다.<sup>29)</sup> 저본이 바뀐 셈인데, GNB와

27) <회복역본>은 영어 Recovery Version을 저본으로 한다. 문체로는 <군젤역>(1953)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논문은 아직 없다. 주 번역자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어 회복역도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 Recovery Version은 ‘고령인’(the aged)이란 단어를 택한다.

28) <MBTC본>은 나중에 <MUBS본>(Mongolian Union Bible Society Version, 몽골성서공회본, 2004, 2011, 2013)이 된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볼 것.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MUBS본>으로 2018년 몽영 대조본이 출간됐는데, 몽골어 성경 본문은 <MUBS본>(2013)이고 영어 성경 본문은 ESV(English Standard Version, 2001)이다. 여기 사용된 ESV는 RSV에 준하는 번역본이고, ‘고령인’(an old man)이란 단어를 택한다.

29) 상세한 내용은 다음 성경의 서문을 볼 것. *Bibli: shine orchuulga (Bible: New Translation)* ([Ulaanbaatar]: Bibliin Orchuulgin Bag, 2016), i.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과 <개정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의 번역가 명칭이 ‘오늘의 몽골어 성경 번역 위원회’(Orchin Yeiin Mongolin Bibliin Orchuulgin Xolboo)에서 ‘성경번역단’(Bibliin Orchuulgin Bag, Mongolian Bible Translators’ Team)으로 바뀐다. 그리고 <개정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이 원어에서 직접 번역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번역 검증이 필요하다.

Deutsch GNB는 같은 목적을 가진 번역본이지만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sup>30)</sup> <개정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도 ‘[생략]’ 전략을 쓰는데, Deutsch GNB가 ‘고령인’(ein alter Mann)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과격한 선택을 한다. 결국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은 최초의 번역본과 개정본 모두가 저본보다 더 과격한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그리고 단어 재선택 전략은 유지형이다. 그런데 ‘[생략]’ 전략은 번역가가 보기에 해당 단어가 문제 소지가 있고 생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아예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해당 성경 번역본은 의역본의 대표적인 번역본인데, 의역본에서는 소위 역동적 동가성(dynamic equivalence) 이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번역의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지만, 과연 ‘[생략]’ 전략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략]’ 전략은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지만, 번역의 편이를 위하여 본문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선택 전략은 3가지로 ‘대사’, ‘고령인’, ‘[생략]’이다. 단어 재선택 전략은 2가지로 유지형, 변화형이다. 따라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처음에는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등 진보적 경향을 보였지만, 개정 작업에서는 보수화와 보편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축자역본은 ‘고령인’을, 의역본은 ‘대사’, ‘고령인’, ‘[생략]’ 등 다양한 선택을 했다. 이것은 의역본 번역가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했음을 보여 준다.

## 5. 성경 번역상의 문제 (3): 동아시아 언어 및 기타 언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

### 5.1. 몽골어 구문자(舊文字) 성경 번역본의 경우<sup>31)</sup>

몽골어 구문자 성경 번역본도 다양한 단어 선택 전략을 보인다. 첫째, 20세기 중반 이전에 번역된 구문자 번역본인 <1950 스완슨본>(The Revised Mongolian New Testament: 1950 Swanson's, 1950)은 ‘[생략]’ 전략을 취하는

30) GNB는 ‘대사’(ambassador), Deutsch GNB는 ‘고령인’(ein alter Mann)이라는 다른 단어를 선택한다.

31) 몽골어 구문자 성경 번역본의 경우는 해독의 정확성을 위해 권성훈 박사에게 재확인을 받았고, 이에 감사를 표한다.

데,<sup>32)</sup> <군젤역>(The New Covenant ... Revised Version: [Stuart Gunzel], 1953)은 ‘대사’(elchi)라는 용어를 선택한다.<sup>33)</sup> <군젤역>은 “스완·스탈리브래스역을 개역한 것으로, ... 원문 해석은 RSV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sup>34)</sup> 따라서 <군젤역>이 “대사”를 택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1950 스완슨본>과 <군젤역>의 관계가 일종의 최초의 번역본과 개정본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어 재선택 전략은 변화형이고, 진보적인 경향을 보인다.<sup>35)</sup> 이것은 단어 선택 전략과 단어 재선택 전략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로, 주석의 영향과 주석의 영향을 받은 저본의 영향이 나타난 경우라고 하겠다.

둘째, 내몽골의 구문자 번역본인 <은혜의 책 구(舊)본>(Iveelt Nom, Old Version, 2004?)은 ‘대사’(elchi)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반면, <은혜의 책 신(新)본>(Iveelt Nom, New Version, 2012?)은 ‘고령인’(edugee oetolsoen, 이렇게 나이 먹고)이란 단어를 선택한다.<sup>36)</sup> <은혜의 책 구본>이 <군젤역>을 참고했다면, ‘대사’(elchi)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

32) *The Classical Mongolian Bible: The Revised Mongolian Old Testament (1840 BFBS), The Revised Mongolian New Testament (1950 Swanson's)* (Japan: ABPPM Foundation, 2008). <스완(William Swan)·스탈리브래스(Edward Stallybrass)본>의 구약은 1840년에, 신약은 1846년에 출판됐다. 따라서 이 성경 번역본 중 <개정 신약성서>(1950년 스완슨본)는 <개정스완·스탈리브래스본>이 맞다. 단, 본 논문에서는 성경 표지에 나온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되, <1950 스완슨본>으로 표기한다. 다음 논문을 볼 것.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202-203.

33) *The New Covenant Commonly Called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in Mongolian, Revised Version, ed. No. 1030* (Hongkong: Hongkong Bible House, 1952). 이 번역본은 <군젤역>으로 1953년 출간되었으나, 출판물 자체에는 서지사항의 연도가 1952년으로 되어 있다. Ibid., 207.

34) Ibid., 208.

35) 단 <군젤역>이 <스완·스탈리브래스본>을 개역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최초의 번역본인지 혹은 <1950 스완슨본>인지는 분명치 않다. 본 논문은, 전자는 사료 접근 문제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고 후자만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전자와 후자가 이 부분에서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만일 전자가 다를 경우, ‘고령인’, ‘대사’가 가능한데, ‘고령인’이라면 ‘고령인’이 [생략]으로 바뀐 경우이고, ‘대사’라면 ‘대사’가 [생략]으로 바뀐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특이한 경우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최초의 번역본이 ‘대사’를 택했을 가능성은 낮다.

36) 내몽골 <은혜의 책 구본>과 <은혜의 책 신본>의 서지사항은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은혜의 책 구본>은 2004년에, <은혜의 책 신본>은 2012년에 각각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고, <은혜의 책 신본>은 MNT(Mongolian New Testament)로 추정된다. 후츠티바타르 몽근사르(Khuchitbaatar Mungunsar)에 의하면, 성경 번역 관련 단체는 ABTC이다. 그러나 이 약자의 원래 단어는 파악하지 못했다. 내몽골 <은혜의 책 구본> 및 <은혜의 책 신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이영철, “몽골어 성서 번역의 특징: 한국어 성서 번역과의 비교 연구”, 『성경원문연구』 33 (2013), 92; 후츠티바타르 몽근사르, “현대 몽골어 성경번역에서 신(神) 호칭에 대한 연구: 한국 개신교 성경번역 사례와 비교해서”,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50.

데 <은혜의 책 구분>과 <은혜의 책 신본>의 관계가 최초의 번역본과 개정본의 관계인지, 혹은 이름만 같고 두 가지 별개의 번역본인지는 현재로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단어 재선택 전략은 변화형이고, 보수화 및 보편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내몽골의 구분자 번역본의 개정 작업에 나타난 변화는 앞서 살펴본 RSV의 개정 작업과 <확장본>의 개정 작업에 나타난 변화와 동일하다.

## 5.2. 만주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

만주어 성경 번역본은 사료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 접근 가능한 사료인 <리포프초프(Stepan Vasiliyevich Lipovtsov)본>은 ‘고령인’(sakda)이란 단어를 택한다.<sup>37)</sup>

## 5.3. 일본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

일본어 성경 번역본은 다양하지만, 번역상 특징이 있는 대표적인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개역>(新改譯, 1970, 1998)은 ‘고령인’(年老[としお, toshio])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각주/난외주에서 ‘대사’(大使, たいし, taishi)라는 단어를 소개한다.<sup>38)</sup> 둘째, <신공동역>(新共同譯, The New Interconfessional Translation, 1987; 1997)은 ‘고령인’(年老[としお, toshio])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각주/난외주는 없다. 셋째, <구어역>(口語譯, Bible Coll.[oquial] Japanese, [1954 & 1955;] 1990)은 ‘고령인’(老年[ろうねん, rouneng])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역시 각주/난외주는 없다. 넷째, <뉴 바이블(새 성경) 신약성서>(ニューバイブル 新約聖書, New Bible New Testament, 2006; 2010)는 ‘고령인’(老いて, oite)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되, 역시 각주/난외주는 없다. 일본어 성경 번역본은 전반적으로 ‘고령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 5.4. 한국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

한국어 성경 번역본은 대부분 각 번역본의 개정본을 확인할 수 있어서,

37) 만주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는 해독의 정확성을 위해서 송강호 선생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에 감사를 표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만주어 성경 번역본은 The Manchu New Testament(Stepan Vasiliyevich Lipovtsov, trans., 1835)이다. 이 사료의 이미지 저작권은 호주 시드니의 케니 왕(Dr. Kenny Wang)에게 있다.

38) “あるいは「大使であって」(혹은 ‘대사로서’).”

단어 선택 및 단어 재선택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한국어 성경 번역본 중 번역상 특징이 있는 대표적인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성경 번역본 중 최초의 번역본인 『예수성교전서』(속칭 로스[John Ross]본, 1887)는 ‘고령인’(늘금된)이란 단어를 선택한다. 보편적인 단어를 선택한 셈이다.

둘째, 개역한글판 계열의 최초의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전서』(1900)는 ‘고령인’(나히 만흔)을 택했다. 그리고 1900년 『신약전서』의 일종의 개정본이고 한국 최초의 신구약전서인 『성경전서』(1911)의 일부인 『신약전서』(1911)는 ‘고령인’(나이 만흔)이란 동일한 단어를 택하면서 철자만 수정했다. 『성경 개역』(Korean Revised Version, 1938; 영인본, 2015)은 ‘고령인’(나이만흔 [나])이란 단어를 선택했고, 각주/난외주는 없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2005)은 ‘고령인’(나이가 많은 [나])이란 단어를 선택했고, 역시 각주/난외주는 없다. 따라서 단어 재선택 전략은 유지형이고, 보수화 및 보편화 경향을 보인다. 사실상 개역한글판 계열은 해당 단어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셋째, 새번역 계열도 여러 번역본이 나왔다. 『신약전서 새번역』(1967)은 ‘고령인’(이렇게 나이가 많고)을 택했다.<sup>39)</sup> 『성경전서 표준새번역』(New Korean Standard Version, 1993)도 ‘고령인’(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을 택하면서, 각주/난외주에 ‘대사’(사신)를 소개한다.<sup>40)</sup> 『성경전서 새번역』(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은 본문의 단어 선택과 각주/난외주가 모두 『성경전서 표준새번역』과 동일하다.<sup>41)</sup>

넷째, 공동번역 계열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공동번역 성서』(Commo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1971/1977)는 해당 단어를 생략하는 ‘[생략]’ 전략을 취한다.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도 마찬가지이다.<sup>42)</sup>

『공동번역 성서』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추가로 살펴보자. 먼저, 북한

39) 본 논문은 사역은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신약전서 새번역』(1967)을 번역한 박창환이 노후에 발간한 『박창환 사역 신약성경』을 보면, “고령인”([이렇게] 늙었고)이란 단어를 선택한다. 『박창환 사역 신약성경』(서울: (주)다다비주일, 2016). 한편 한국 최초의 사역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일(James Scarth Gale)의 『신역(新譯) 신구약전서』(1925)는 ‘고령인’(나이늙은지라)이라는 단어를 택한다.

40)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요, 이제는 갠힌 몸입니다.’”

41) 『성경전서 새번역』(2001)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2001)을 2004년에 개칭한 것이다.

42)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은 영어 명칭에서 New나 Revise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출판 연도만 1999년으로 표시하고 있다.

성경이다. 대표적인 북한 성경은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에서 출판한 『성경전서』(1983, 이하 『조기련 성서』)이다.<sup>43)</sup> 일반적으로 추정되기를, 『조기련 성서』는 『공동번역 성서』를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런 추정을 받아들인다면, 『조기련 성서』는 『공동번역 성서』의 일종의 개정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기련 성서』 중 『신약전서』는 ‘대사’(사신)란 단어를 선택한다. 단어 재선택 전략이 변화형이고, 진보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한국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색적인 사례인 셈이다. 따라서 이것은 『조기련 성서』가 『공동번역 성서』를 저본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공동번역 성서』를 능동적으로 반영했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조기련 성서』가 생략되어서 없는 단어를 찾아내어 채워 넣었고, 그것도 한국어 성경 번역본의 일반적인 전통인 ‘고령인’이 아니라 ‘대사’(사신)라는 단어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 번역본 중에서 ‘대사’와 관련된 용어로 ‘사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새번역』 계열이기 때문에, 『조기련 성서』와 『새번역』 계열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새번역』 계열 가운데서 ‘사신’이란 단어가 『신약전서 새번역』(1967)에는 각주/난외주(사본 고증 포함)에도 나오지 않고,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에 처음으로 각주/난외주에 나오기 때문에, 출간 연도만 고려한다면, 『조기련 성서』가 ‘대사’(사신) 전략을 처음으로 채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 성경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번역가가 참여하고 북한 외부에서도 번역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북한 성경 중 『조선어 성경: 연대기 성경』(2008)은 단어 선택 전략에서 ‘[생략]’ 전략을 취한다.<sup>44)</sup> 따라서 『조선어 성경: 연대기 성경』을 『공동번역 성서』의 개정본이라고 볼 때, 단어 재선택 전략은 유지형이다.

또한 『공동번역 성서』 번역에 참여했고 오랫동안 『공동번역 성서』를 공인본으로 사용하던 교파인 가톨릭교회는 독자적인 성경을 출간하였다. 『성경』(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간, 2005)은 ‘고령인’(늙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공동번역 성서』와 『성경』의 관계가 별개일 수도 있지만, 만일 최초의 번역본과 개정본의 관계라면 단어 재선택 전략은 변화형이고 보수화 혹은 보편화 경향을 보인다.

43) 조선기독교도련맹 편, 『성경전서』(평양: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 1983). 해당 기구의 명칭은 계속 변화해 왔는데, 당시는 조선기독교도련맹이 맞다.

44) 『조선어 성경: 연대기성경』(서울: 서울유에스에이[SeoulUSA], 2008), 1616.

## 5.5. 중국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

<성경: 부찬미시(신편)>(聖經: 附讚美詩[新編], 2004)은 ‘고령인’(這有年紀的, 이처럼 나이가 많은 [나])이란 단어를 선택했다.<sup>45)</sup> 한편 <풍성적생명 연독본>(聖經: 豐盛的生命研讀本)은 <성경: 부찬미시(신편)>의 본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각주를 추가하는데, 해당 부분의 각주는 해당 단어의 번역이 아니라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노예제에 대하여 설명한다.<sup>46)</sup>

## 5.6. 기타 언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번역 저본으로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성경 번역본 등이 사용되었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 성경 번역본은 이미 다뤘기에, 러시아어와 독일어 성경 번역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러시아어 성경 번역본은 ‘고령인’(срапец, старец)이라는 단어를 선택한다. 이것은 러시아어 성경 번역본 중 공인본도 그렇고, 교회러시아어본도 그렇다.<sup>47)</sup> 한편 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BG(Biblia Germania, 1545)도 ‘고령인’(ein alter [Paulus])을 택하고, LB(Luther Bibel, 2017)도 ‘고령인’(ein alter Mann)을 택하며, 위에서 이미 살펴본 Deutsch GNB도 ‘고령인’(ein alter Mann)을 택한다.

## 6. 성경 번역상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빌레몬서 1:9의 “presbutēs”에 대한 단어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임으로써, 주석 및 성경 번역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즉, 세 가지 양상을 보였는데,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하거나,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하거나, 아예 해당 단어를 생략했다. 각각의 경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상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들의 특징과 의의를 간추려 보자.

45) 『성경: 부찬미시(신편)』(남경: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 2004).

46) N.p., n.d.

47) БИБЛИЯ: … КАНОНИЧЕСКИЕ(1816, 1858, 1876, 2002). 그리고 БИБЛИЯ: … НА 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ОМ ЯЗЫКЕ(1993)는 교회러시아어본인데 철자상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역시 ‘고령인’(срапец)을 택한다. 러시아에서는 이 단어를 영적 지도자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 6.1.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한 경우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다수가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했다. “presbutēs”에 대한 단어 선택에 있어서 ‘대사’라는 단어 선택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그런 가능성은 주로 주석에 영향을 미쳤고, 성경 번역에는 일부 성경 번역본에 영향을 미쳤지만 보편화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주석은 여러 가능성을 소개해도 좋고, 아니 여러 가능성을 소개할수록 좋지만, 성경 번역은 사실상 하나의 가능성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성경 번역이 하나의 가능성만을 갖게 될 경우, 가장 보편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이 대부분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했을 경우는, 개정본의 단어 재선택 전략에서 유지형이 나타난다. 굳이 변화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사’라는 참신하지만 보편성이 떨어지는 단어를 선택했을 경우, 개정본의 단어 재선택 전략에서 ‘고령인’이란 단어를 선택하는 변화형이 나타나고, 보수화 혹은 보편화 경향을 보인다.

## 6.2. ‘대사’란 단어를 선택한 경우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에서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한 경우가 있어서 주목을 끈다. 필자가 아는 한, 동아시아 언어 성경 번역본에서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한 경우는 흔치 않고, 몽골어 성경 번역본(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과 몽골어 구문자 성경 번역본 모두)과 한국어 성경 번역본(『조기린 성서』)이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몽골어 성경 번역본에서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한 경우는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에서 한 가지, 몽골어 구문자 성경 번역본에서 두 가지이다.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경우는 <확장본>인데, <개정확장본>에서 ‘고령인’을 택하였다. 그 결과 개정본을 기준으로 할 때,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 가운데에서 ‘대사’를 쓰는 번역본은 하나도 없다.

몽골어 구문자 성경 번역본의 경우는 <군젤역>과 <은혜의 책 구분>이다. <1950 스완슨본>은 [생략] 전략을 썼는데, <군젤역>이 ‘대사’라는 단어를 택했다. 본 연구가 확인한 바로는 [생략]이란 단어 선택 전략이 ‘대사’라는 단어 재선택 전략으로 바뀐 경우는 많지 않다. 한편 <은혜의 책 구분>은 ‘대사’를 택했지만, <은혜의 책 신본>은 ‘고령인’을 택했는데, 이런 패턴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정본을 기준으로 할 때, 최근

내몽골의 구문자 성경 번역본 가운데에서 ‘대사’를 쓰는 번역본은 하나도 없다.<sup>48)</sup> 물론 <군젤역>은 ‘대사’를 사용하지만, 이 번역본은 이미 오래된 번역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한 <확장본>에 대해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다. <확장본>에는 번역상 보수적인 경향과 진보적인 경향이 모두 나온다. <확장본>은 의역본, 나아가 확장본 성격을 지닌 번역본으로, 번역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혹은 재량권을 발휘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번역 원칙에 있어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즉 신명(神名)에 있어서는 토착어인 ‘보르항(burkhan)’이나 ‘텡게르(tenger)’를 거부하고 새로운 조어인 ‘세상의 주인’(yeptoentsiin ezen)을 선택한다.<sup>49)</sup> 그런데 “presbutēs”라는 단어는 신명처럼 신학적인 논쟁과 직접 관련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선택 전략에 있어서 자유로운 태도를 나타낸다. 더구나 <확장본>의 실질적인 번역가가 선교사라는 점에서, ‘고령인’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보다 선교사적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대사’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한 주석도 있다.<sup>50)</sup>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확장본>의 개정본에서 ‘대사’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고령인’이란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왜 일어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주석과 성경 번역의 단어 선택 전략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생각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주석은 한 단어의 단어 선택에 있어서 가능한 한 선택 가능성을 최대한 넓혀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독자(대다수 전문가적인 독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주석의 성격상, 다양한 설명을 할 지면이 많고, 실제로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성경 번역은 한 단어의 단어 선택에 있어서 가능한 한 선택 가능성을 최대한 좁혀 가장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한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독자(대다수 대중적인 독자)로 하여금 반응하게 한다. 성경 번역의 성격상, 다양한 설명을 할 지면이 없고, 실제로 적을수록 좋다. 부득이 단어나 문장의 또 다른 번역 가능성을 지적해야만 할 경우 각주/난외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된다. 심지어 성서공회

48) <은혜의 책 구분>과 <은혜의 책 신본>이 최초의 번역본과 개정본의 관계인 것을 가정할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본 논문의 전체적인 결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9) 후츠티바타르 몽근사르, “현대 몽골어 성경번역에서 신(神) 호칭에 대한 연구”, 43-51.

50) 가령 다음 주석은 ‘고령인’과 ‘대사’의 경우를 다 설명하지만, 사역에서 ‘대사’를 택한다. Peter T. O’Brien, *Colossians and Philemon*, Word Biblical Commentary (Nashville: Thomas Nelson Inc., 1982), 284, 289-290.

를 비롯하여 많은 성경 번역 기관이 성경 원문의 번역만을 허용할 뿐 추가적인 설명이나 주석을 배제하는 원칙을 지닌다. 성서공회가 ‘주석 성경’(Commentary Bible)을 허락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석의 단어 선택 전략은 제시적이고, 성경 번역의 단어 선택 전략은 지시적이다. 따라서 성경 번역이 한 가지 단어만을 선택해야 할 때, 대중성 혹은 대중의 공감대를 염두에 두는 것은 개연성이 높은 일이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 번역본을 읽음으로써, 성경 원문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해석을 읽게 되는 것이다.

### 6.3. 해당 단어에 대한 번역을 생략한 경우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에는 아예 해당 단어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편의주의(opportunism)란 대답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성경 번역 방식이 점차 축자역 혹은 형식적 일치(일대일 대응, formal correspondence) 방식에서 의미역 혹은 역동적 등가성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고 놔두어 봐야 혼란스럽기만 한 단어를 생략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다만 이런 생략 작업도 일종의 해석이고, 따라서 두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현재 우리가 성경 원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생략하는 단어 선택 전략을 취할 경우, 자칫 해당 단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 발생 가능한 해석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본 논문에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언어 성경 번역본을 살펴본 가운데, ‘[생략]’ 전략을 선택한 번역본은 대개 의미역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둘째, 최근 특정 단서를 붙이거나 특정 집단의 입장을 반영한 학문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학문을 형용사적(adjectival) 학문 혹은 소유격의(genitive) 학문이라고 부른다. 신학의 경우, 흑인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장애인신학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고령신학(Theology of aging)이 대두되고 있다.<sup>51)</sup> 이런 형용사적 신학 혹은 소유격의 신학이 성경 번역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령신학의 관점에

51) Melvin A. Kimble, et al., eds., 『노화, 영성, 종교』, 노인사목위원회, 김열중, 이순주 역 (서울: 소화, 2011); Melvin A. Kimble and Susan H. McFaden, eds.,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A Handbook*, Vol. 2 (Minneapolis: Fortress, 2003). 고령신학은 고령인신학 혹은 고령화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노인신학이 사용되었다.

서 성경 번역가가 ‘[생략]’ 전략을 취할 경우, 과연 “presbutēs”가 생략해도 괜찮은 단어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이 단어가 단지 번역가의 재량에 맡겨질 수 있는 군더더기와 같은 단어인지, 아니면 꼭 번역이 필요한 단어인지.

‘고령인’과 ‘대사’란 단어 사이의 선택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손쉬운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고령인-대사라고 하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합쳐도 의미의 왜곡이나 상실의 크게 초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략이나 아니냐 사이의 선택은 바울의 정체성과 그것에 대한 번역가의 태도가 드러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번역가가 “presbutēs”라는 단어를 생략하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번역가가 “presbutēs”를 먼저 ‘고령인’이라고 생각한 뒤 생략했는지, 아니면 ‘대사’라고 생각한 뒤 생략했는지.

번역가가 ‘고령인’이란 단어를 생략했다면, 번역가는 ‘고령인’을 바울이라는 인간의 정체성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셈인데, 이것은 소위 ‘연령 차별’(ageism)에 해당된다.<sup>52)</sup> 최근의 고령신학은 고령인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차원뿐 아니라 고령인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는 원칙적인 차원도 포함한다. 따라서 성경 원문에서 바울이 굳이 “presbutēs”를 언급한 사실은 설사 그 단어의 의미나 사용한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번역가가 ‘대사’란 단어를 생략했다면, 번역가는 ‘대사’를 바울이라는 사역자(곧 선교사)의 정체성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셈인데, 이것은 ‘대사’를 선호하는 주석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생략도 일종의 해석이기 때문에, ‘고령인’이나 ‘대사’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생략의 경우, 번역본에 생략의 결과만 나타날 뿐, 과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현실에서 이런 이유를 설명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52) 크레이처(Larry J. Kreitzer)는 그의 주석 가운데 ‘도덕적 교훈으로서의 빌레몬서’라는 장에서 리처드 스틸(Richard Steele)의 *A Discourse concerning Old-Age: Tending to the Instruction, Caution and Comfort of Aged*(고령론)을 소개한다. 스틸이 고령에 적합한 은혜들을 열거하면서 특히 자비 혹은 사랑이 일곱 번째 은혜인데, 바울이 이런 은혜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Larry J. Kreitzer, *Philemon*, 71.

## 7. 결론: 전문적 번역으로서의 주석, 대중적 번역으로서의 성경 번역

빌레몬서 1:9의 “presbutēs”란 단어에 대한 성경 번역을 살펴보니, 여러 언어의 성경 번역본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선택된 단어는 ‘고령인’이었다.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단어 선택 전략에서 ‘고령인’, ‘대사’, ‘[생략]’ 등 3가지 유형을 보였는데,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도 개정본을 기준으로 할 때, 보편적으로 선택된 단어는 ‘고령인’이었다.

첫째, ‘고령인’의 단어 선택 전략을 취한 경우, 단어 재선택 전략은 유지형, 변화형 중에서 유지형을 나타냈고, 보편화를 지향했다. 둘째, ‘대사’의 단어 선택 전략을 취한 경우, 단어 재선택 전략은 ‘대사’가 아닌 ‘고령인’을 택하는 변화형을 나타냈고, 역시 보편화를 지향했다. 셋째, ‘[생략]’의 단어 선택 전략을 취한 경우, 단어 재선택 전략은 유지형을 나타냈고, 보편화를 지향하지 않았다. 따라서 번역의 결과상으로는 ‘고령인’과 ‘[생략]’이 남고, ‘대사’는 사라졌다. 최종 결과가 ‘고령인’이 다수를 이뤘다는 점에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은 여러 언어의 성경 번역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단어 선택 전략과 단어 재선택 전략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니, 성경 번역가 중심의 재량권과 독자 중심의 대중성이 적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주석의 성경 번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주석과 성경 번역의 단어 선택 전략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성경 번역에서 성경 번역가 중심의 재량권이 비교적 최근에 강조되었다면, 독자 중심의 대중성은 유구한 역사가 있다. 성경 원문인 신약이 그리스어 대중 언어(Koine)로 기록되고, 성경 번역본 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VUL이 라틴어 대중 언어(Vulgar Latin)로 번역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번역의 대중성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특히 성경 번역 역사와 연결하여 역사적 의의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에서 신학은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예배와 신학의 관계이다. 곧 ‘예배드리는 바가 믿는 바(신학하는 바)’(lex orandi, lex credendi: the law of praying[worship], the law of believing)라는 경구가 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배에서 비롯되고, 신학은 그런 신앙의 결정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신학은 교회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신도와 신학의 관계이다. 곧 ‘성도들의 감각’(sensus fidelium: the sense of the faithful)이라는 구문이 있다.<sup>53)</sup> 신학은 신

53) 이것은 sensus fidei, sensus fidei fidelium 혹은 sensus fidei fidelis라고도 부른다.

앙의 기준(*regula fidei*)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산되어 나가는데, 이런 기준은 성도들의 신앙적 감각을 토대로 삼고 그것을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신학은 성도들의 보편적인 감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된다. 즉, 신앙과 신학은, 교회라는 신앙 상황과 교인이라는 신앙 주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성도들의 감각’이란 표현은 ‘[성경] 독자들의 감각’(sensus lectorium [bibliae])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번역은 독자의 대중성 혹은 공감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메츠거(Bruce Metzger)는 NRS 번역과 관련하여, 성경 번역가가 해결할 문제로 5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즉, 표현법(wording), 단어 의미(meaning), 구두점(punctuation), 한 단어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동시에 사용 가능할 때 선택하기(proper names and common nouns), 그리고 남녀 포괄 용어(inclusive language) 등이다.<sup>54)</sup> 본 연구자는 이 5가지에 더해서, 여섯 번째로 대중 영합주의(Populism)의 위험성을 자각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중성(popularity)을 추가할 것을 주장한다. 라민 사네(Lamin Sanneh)가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친숙함이 신앙을 낳는다’(Familiarity Breeds Faith)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이 표현을 빈다면 ‘대중성이 신앙을 낳는다’(Popularity Breeds Faith)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55)</sup>

독자는 성경 번역 작업 과정 자체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성경 번역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참여한다. 독자는 성경의 소비자로서 대중성, 공감대 혹은 성경 독자들의 감각을 통하여 성경 번역의 범위 특히 성경 번역상 단어 선택의 범위를 규정해 준다. 그리고 성경 번역본은 개정 과정에서 성경 독자의 반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성경 독자는 성경 번역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 번역가는 성경 번역 작업을 통해 성경 번역본을 만들지만, 성경 독자는 대중의 선택을 통해 성경 번역본이 존속하게 만든다.<sup>56)</sup>

주석가는 전문적 번역을 통해 단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진보적인 역할을 맡는다면, 성경 번역가는 대중적 번역을 통해 단어 선택의 폭을 좁히는 보

54) Bruce M. Metzger, “Problems Confronting Translators of the Bible”, Bruce M. Metzger, Robert C. Dentan, and Walter Harrelson, *The Making of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52-56.

55) 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9), 192-210.

56) 가령 후츠티바타르 몽근사르는 그의 논문 가운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에서 신명으로 ‘보르항(burkhan)’이 대세가 되었지만, 최초의 신명이었던 ‘세상의 주인’(yeptoentsiin ezen)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지적했다. 후츠티바타르 몽근사르, “현대 몽골어 성경번역에서 신(神) 호칭에 대한 연구”, 57-61.

수적인 역할을 맡는다. 물론 성경 번역의 단어 선택이 한계를 드러내면, 주석은 다시 새로운 단어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석과 성경 번역은 선순환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상호 기여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기억할 것은, 주석가는 성경 번역가를 돕고 스스로 성경 번역가도 될 수 있지만 주석가가 자동적으로 성경 번역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석가와 성경 번역가는 주석과 성경 번역의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책이 사람들의 책이 되게 만드는 데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단어 선택 전략, 주석, 성경 번역, 전문성, 대중성, 고령신학.

strategy of word choice, commentary, Bible translation, professionalism, popularity, Theology of Aging.

(투고 일자: 2020년 1월 28일, 심사 일자: 2020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3월 2일)

<참고문헌>(References)

- 안교성, “성경 번역과 교회 연합: 성경 번역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정운 명예  
총장 은퇴 기념 출판위원회 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2001, 127-145.
-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에서  
<몽골성서공회본>으로”, 『성경원문연구』 42 (2018), 90-114.
- 이영철, “몽골어 성서 번역의 특징: 한국어 성서 번역과의 비교 연구”, 『성경원문  
연구』 33 (2013), 77-94.
- 타카시, 시마무라,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안증환 역, 『성경원문연구』 19 (2006),  
200-214.
- 후츠티바타르, 몽근사르, “현대 몽골어 성경번역에서 신(神) 호칭에 대한 연구: 한  
국 개신교 성경번역 사례와 비교해서”,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  
원, 2019.
- Barth, Markus and Blanke, Helmut, *The Letter to Philemon: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0.
- Kimble, Melvin A., et al., eds., 『노화, 영성, 종교』, 노인사목위원회, 김열중, 이순  
주 역, 서울: 소화, 2011; Kimble, Melvin A. and McFaden, Susan H., eds.,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A Handbook*, vol. 2, Minneapolis:  
Fortress, 2003.
- Kreitzer, Larry J., *Philemon*,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8.
- Metzger, Bruce M., Dentan, Robert C., and Harrelson, Walter, *The Making of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 O'Brien, Peter T., *Colossians and Philemon*, Word Biblical Commentary, Nashville:  
Thomas Nelson Inc., 1982.
- Sanneh, Lamin,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9.
- Trenchard, Warren C., *The Student's Complete Vocabulary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Complete Frequency Lists, Cognate Groupings & Principal  
Part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 Walls, Andrew F.,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6.

<Abstract>

**Professionalism vs. Popularity:  
Different Strategies of Word Choice in Bible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esbutēs”(πρεσβύτης) in Philemon 1:9  
in Modern Mongolian Bibles**

Kyo Seong Ah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n the tradition of Christianity, translated versions of the Bible have been highly regarded as much as the ones in original languages. It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Church gave the place of honour to the Vulgate, a translated version, at least in the Middle Age. This means that translation has always been crucial in the thought and practice in various branches of Christianity, in particular, commentary and Bible translation.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of commentary and Bible transla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Bible translation. In doing this, this study delves deeply into the different word choice strategies in Bible translation, focusing on “presbutēs”(πρεσβύτης) in Philemon 1:9 in the modern Mongolian Bibles as a case study. The Letter to Philemon is known to have relatively a few, if any, commentary issues to consider, such as the meaning of “presbutēs”. Meanwhile modern Mongolian Bibles, which began to emerg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the Mongolian Cyrillic alphabet, show the diversity of word choice strategies in Bible translation. In translating the word “presbutēs”, modern Mongolian Bibles adopt three different word choice strategies of choosing “an old man” or “an ambassador” or of omitting the word. More interestingly, modern Mongolian Bibles adopt two different word re-choice strategies in their revised versions: change or continuity. To put perspective on the case of modern Mongolian Bibles, this article widely surveys other cases: the English Bibles including the RSV which first chose “an ambassador” for the word of “presbutēs”; other Bibles in Asian languages such as Mongolian in Old Script, Manchurian, Japanese, Korean, and Chinese; and some European languages such as Russian and German which Mongolian translators are familiar with. The result shows

that most of the modern Mongolian Bibles have the propensity to choose “an old man”, which is found in most of the cases in other language Bible translations as well. It also sheds light on the proces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particularly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based Bibl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commentary and Bible translation have different groups of target readers, with the former aiming at professionals and the latter at grassroots. Because of this, commentary allows as many different words as possible, and thus tends to be expansive and suggestive; whereas Bible translation pinpoints one word, and thus tends to be restricted and directive. With their different but complementary roles, both commentators and Bible translators can help ‘the Book of God’ become ‘the Book of people’. In sum, commentary opts for professionalism while Bible translation popularity.